



[경제종합]
현대차그룹
레벨4 자율주행차
강남서 시범 운행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02.23
(-22.18)

금리
4.033
(국고채 3년)
(-0.053)

코스닥
707.78
(-6.82)

환율
1377.50
(원·달러)
(+12.70)(10일)

서울·경기4곳 뺀 인천·세종 등 규제지역 전부 해제

〈과천·성남·하남·광명〉

11·10 부동산 대책

올 들어 3번째 규제지역 해제
文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
내달 보완대책 추가로 발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종합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해제는 올 들어 3번째다. 이로써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환원됐다.

규제지역은 예상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 경색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PF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은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폴리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12월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17일부터 우윳값 줄줄이 인상

원유 가격 인상에 우윳값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매일유업, 남양유업과 서울우유는 오는 17일부터 제품 출고가를 6~8% 인상한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뉴스스

“美·中 등 추격으로 위협 ‘팹리스 육성’ 필수 과제”

2022 메트로 반도체 포럼

박재근 교수 “부족한 정부 지원
인력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2 메트로 반도체 포럼’이 9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주최하고 KRX 한국거래소와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후원했다.

〈관련기사 L7·L8면〉

행사는 양향자 국회의원과 흥순우 KRX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축사, 그리고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개회사로 시작됐다. 모두가 반도체 산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위기에 빠진 상황임에 동의하고, 포럼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자칫 빼를 통채로 내어줘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도체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반도체 포럼이 이런 위기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기조강연을 맡은 박재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등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지원과 인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소부장과 자동차용 반도체 등 취약한 분야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과 대외 협력위원장장을 맡고 있는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인 팹리스 산업 중요성을 소개했다. 팹리스 육성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투자와 지원안 확대, 스타트업 육성과 M&A 추진 등 방법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공급망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가 본격화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미·중 반도체 경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미국 무역제재로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위협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시장 변화와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기회 요인을 최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웅 기자 juk@

m-커버스토리

6%대 예금에 미소… 대출자는 죽을맛

고금리 시대 빛과 그림자

저축은행 연 6% 넘는 상품 등장
대출금리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이자 감당 어려워 영끌족 곤혹

#. 서울 중구 A저축은행 영업점은 이른 아침부터 북서울통을 이루고 있다. 영업점을 찾은 사람들은 뭉칫돈을 보관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다. 기준금리가 상승으로 예금금리가 크게 상승해서다. 연 6%를 넘어서는 예금 상품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저축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예금 상품이 매진 된다는 소식에 오전 6시부터 준비했다.

#. 신림동에 거주하는 최지은(가명)씨는 금리인상이 달갑지 않다. 지난해 4월 직

장을 염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로 상경했기 때문이다. 총 1억7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2.85%였던 대출금리는 1년이 지나자 4.8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매달 내던 이자도 41만원에서 78만원으로 급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향후 대출금리가 더욱 오를 전망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예금자와 대출자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은퇴자, 자산가 등 뭉칫돈이 있는 사람들과 주택담보대출 등 돈을 빌린 차주들의 표정이 천차만별이다. 고금리 시대에 젊어 들면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운 셈이다. 〈관련기사 4면〉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는 2.0%포인트(p)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연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동안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금리인상 기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와 투자자들은 미소 짓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5%가 넘는 수준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도제한이 있지만 연 10% 수준의 적금 상품까지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높다. 〈4면에 계속〉

/김정산 기자 kimsan119@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취임 6개월尹대통령… 경제 순방 통해 꼬인 정국 풀어낼까
▲尹, 인니 하원의장 접견… “G20참석 한·인니 관계 강화”

▲ ‘여당 몫’ 국회부의장 정우택 선출… 경제관료 출신 최다선
▲ 국회,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



▲ 권영세, 현재에 의견서 제출… “대북 전단금지법은 위헌”
▲ 국산전투기 KF-21 시제 2호기, 35분 간 최초비행 성공